

## 마태오 복음서 12장

###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마르 2,23-28; 루카 6,1-5)

안식에 관한 논쟁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sup>1)</sup> 이러한 논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특히 안식일 규정과 관련하여 당신께서 지니신 권한을 드러내신다.<sup>2)</sup>

-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sup>3)</sup>
- 2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sup>4)</sup>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웃의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이삭을 따먹는 것은 가능하였다(신명 23,25 참조). 밀이삭을 뜯어 먹은 제자들의 행위는 배가 고파서 따먹었을 뿐이다. 추수의 행위나 노동의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이를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보고 비난한 것이다.

- 3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 4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지 않았느냐?
- 5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 본 적이 없느냐?

1사무 21,1-6에 보면, 아히멜렉은 사제들이 막는 빵이지만, 배고픈 다윗과 부하들에게 제공하였다. 또 사제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율법에 규정된 제사들을 드려야 했다.<sup>5)</sup> 그래서 사제들에게는 예외적인 일이 된 것이다.

---

1) 마태 12,9-14; 루카 13,10-17; 14,1-6; 요한 5,1-18; 7,19-24

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99쪽, 각주 1.

3) 신명 23,25-26 : “너희가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경우, 원하는 만큼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4) 탈출 20,10 :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신명 5,14 :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

5) 민수 28,9-10 : ‘안식일에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를,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 십분의 이 에파의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이는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바치는 번제물이다.’

- 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 7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6)</sup>
- 8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sup>7)</sup>

성전은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진정한 예배는 예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마르 3,1-6; 루카 6,6-11)

- 9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 10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sup>8)</sup> "안식일에 병을 고쳐 주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sup>9)</sup>
- 1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 끌어 내지 않겠느냐?<sup>10)</sup>
-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 13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다른 손처럼 성해져 건강하게 되었다.
- 14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sup>11)</sup>

6) 1사무 15,22 :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숫양의 굳기름보다 낫습니다.

호세 6,6 :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7) 요한 5,16-17 :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8) 루카 20,20 :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요한 8,6 :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9) 루카 14,3 :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10) 루카 14,5 :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13,16 :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열여덟 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11) 마르 11,18 :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루카 19,47 : 예수님께서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

- 1) 바리새이들은 안식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로 예수님에게서 시빗거리를 찾고자 질문하는 것이다.
- 2)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함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신다.
- 3) 기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신다.
- 4)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선을 행하셨으나, 바리새이들은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함으로써 악을 행하였다.

## 주님의 종 예수님

- 15 예수님께서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시면서도,  
 16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sup>12)</sup>

- 1) 예수님께서 물러가심은 적대자들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시는 것이다.
- 2) 병자를 고쳐주심은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지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다.

17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18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울바름을 선포하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그는 울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21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 1)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으로,<sup>13)</sup>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사 53장에 나오는 ‘고난

---

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요한 5,18 :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12) 마르 3,12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13) 이사 42,1-4 :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

받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는 주님의 종'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 2) “올바름”은 의로움의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계약 관계의 바탕으로 삼으시는 법규를 가리킨다.<sup>15)</sup>
- 3) 예수님께서서는 조용히 복음을 선포하셨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감추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한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당신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은 떠들썩한 활동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소문을 듣고 모여왔다. 예수님께서서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듯이,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참고 받아들이신다.

### **예수님과 베엘제불(마르 3,20-30; 루카 11,14-23; 12,10)**

- 22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자,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
- 23 그러자 군중이 모두 질겁하며,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하고 말하였다.
- 24 바리사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하였다.
- 25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어느 고을이나 집안도 서로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한다.
- 26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서로 갈라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 내겠느냐?

- 1) 예수님의 복음 선포 활동은 유다인들 사이에 시기에 찬 분분한 의견과 함께 분열과 갈등을 가져온다.<sup>16)</sup>
- 2)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들에 대해 아무런 권능도 지니지 못하고 다만 그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그들을 조종할 뿐이라는 비난을 받으신다.<sup>17)</sup>

---

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여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14) 앞, 100쪽, 각주 16 참조.

15) 위, 각주 15.

창세 18,25 :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에게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명 4,6-8 :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는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16) 위, 각주 17 참조.

**27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나?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驅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근거 없이 가혹하게 중상하는 자기 스승들을 단죄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8)</sup>

**28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sup>19)</sup>

**29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느님 나라"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드러내신다. 이 시대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행위로 열린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으신다.<sup>20)</sup>

2) 힘센 마귀들을 묶어 놓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신 예수님뿐이시다.

**30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흠어 버리는 자다.**

1) 함께한다 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2) '모아들이다'라는 표현은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행위를 상징하는 목자의 일을 상기시킨다. 이는 또한 수확하는 이들의 작업을 가리킬 수도 있다.<sup>21)</sup>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sup>22)</sup>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17) 위, 101쪽, 각주 18 참조.

18) 위, 각주 22.

19) 사도 10,38 :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20) 앞, 각주 23.

21) 위, 각주 25.

22) 1티모 1,13 :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1요한 5,16 :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을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2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 1)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악의로 그것을 사탄의 일로 돌린다.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악의에 찬 거부하는 용서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다.<sup>23)</sup>
- 2) 하느님은 용서의 하느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말과 마음**(루카 6,43-45)

- 33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sup>24)</sup>
- 35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 3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껄인 쓸데없는 말을 심판 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sup>25)</sup>
- 37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 1) 나무와 그 열매는 같이 간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됴됨이를 알 수 있다. 말은 사람의 중요한 행위이다.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다. 바리사이들은

---

23) 앞, 각주 27 참조.

24) 집회 27,6 :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잠언 10,14 : 지혜로운 이들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몰락을 불러들인다.

25) 야고 3,1-6 :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 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 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 예수님을 비방하는 악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 2) 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말로써 악을 행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요나의 표징(마르 8,11-12; 루카 11,29-32)

- 38 그때에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 40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 1) 유대교에서도 메시아는 자기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일으켜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악의에 차 있거나 표징을 단순한 기적과 동일시할 때는 문제가 된다.<sup>26)</sup>
- 2)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 3)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지 않는 무리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 4) 요나의 표징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예표 한다.

- 41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sup>27)</sup>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함으로 하느님의 심판을 면하였으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치 않았다. 또 솔로몬 왕 시대에 남방 여왕은 솔로몬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곳에서 찾아왔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믿지도 않았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니네베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마

26) 앞, 102쪽, 각주 31.

27) 요나 3,5-6 :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잣더미 위에 앉았다.

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은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 되돌아오는 악령(루카 11,24-26)

- 43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 44 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 45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sup>28)</sup>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체험하였다. 예수께서 마귀들도 내쫓아주시고 치유도 해주셨다. 하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마치 빈집처럼 되었다. 그러므로 쫓겨났던 더러운 영이 더 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지배하게 된다. 그 사람의 상황은 더 악화한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더러운 영들이 주인 노릇을 함으로써 더 악화시킬 것이다. 믿다가 타락하면 이처럼 된다.

#### 예수님의 참가족(마르 3,31-35; 루카 8,19-21)

- 46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 47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 48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 49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 5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1) 성경에서 “형제”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도 가리키고 가까운 친족들도 가리킨다.<sup>29)</sup>

28) 2베드 2,20 :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얹으로써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그 사람들이 그것에 다시 말려들어 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끝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29) 앞, 103쪽, 각주 37.



- 2)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신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이다. “하느님” 대신에 “아버지라 함으로써 이 가정의 성격이 강조된다. ‘영적’인 누이와 어머니가 언급되는 것은 예수님 둘레에 여제자(女弟子)들도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sup>30)</sup>
- 3) 신앙공동체는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이들이 모두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들이다. 신앙의 공동체는 혈육이 아닌 말씀과 실천으로 묶인 사랑 공동체이다.

---

창세 13,8 :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레위 10,4 :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차판을 불러 말하였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가거라.”

1역대 23,22 : 엘아자르는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의 일족 키스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장가들었다.

30) 위, 각주 41.